



기아자동차와 중국 정부·기업이 합작 투자한 동평위에도기차유한공사 제 1공장에서 중국 근로자들이 승용차 엔진을 조립하고 있다. 위에는 올 안에 3만6천 대 규모의 스포티지 라인을 신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래 사진은 위에도공장 입구에 선 이종태 기자(오른쪽)와 나명주 기자. /나명주기자 mjna@

‘창당 주역’ 천정배 탈당선언

與 오늘 중앙위... 당 해체 ‘갈림길’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자 법무장관 등 여권 핵심 요직을 거친 천정배 의원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미 탈당을 선언한 바 있는 열연 의원도 이르면 30일 당을 떠날 예정이다. 우리당은 전당대회를 통한 집시있는 통합신당 추진과 당의 해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 가운데는 양형일, 주승용, 유선호, 우윤근, 김태홍 의원 등 5~6명이 다음달 10일 이전에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지향적 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당의 품

을 떠나기로 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 미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아 떠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 같은 언급은 선도 탈당을 통해 우리당 안팎의 개혁세력과 연대해 일정한 정치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당의 해체를 촉진하고 범여권 대통령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천 의원은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분들과 논의했지만 탈당은 개인의 견해를 따르는 게 옳다”면서 “그런 점에서 (탈당은) 제 자신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 의원은 그동안 제종길,

이상경, 김재윤 의원 등과 탈당 및 대통령신당 구상에 대해 긴밀히 교감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후속 탈당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미 탈당을 공언한 열연 의원은 이르면 30일 탈당을 결행할 방침이고, 김한길 원내대표와 조일현, 주승용 의원 등 원내대표단과 강봉규 정책위의장도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탈당 러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초당원제로의 당헌개정을 제시도할 예정이지만 사수와 당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중앙위 결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후속 탈당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스포티지 中생산’ 사실이였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스포티지의 중국 생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15만대의 스포티지를 생산, 주력 차종으로 육성해 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취재진이 지난 주 광주·전남 비전21의 ‘중국경제 체협단’과 동행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와 중국 정부·기업이 합작 투자한 장수성(江蘇省) 연청(鹽城)시 ‘동평위에도기차유한공사’(東風悅達汽車有限公司)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1공장과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2공장에서 올 안에 연간 3만6천



이종태·나명주기자 현지 취재

중합작법인 “올 36,000대 양산 가능” 생산 준비 끝내고 본사 승인만 기다려 광주공장 수출타격 불보듯... 대책 시급

대 규모의 스포티지를 생산, 중국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본보 지난해 12월13일자 1면>

위에도기차 김영만(51) 기획본부장(부총경리)은 “중국 내 일반 승용차시장보다 RV(레저용 차량)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시장 전망이 밝아 이미 체계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해놓고 본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스포티지가 출시될 경우 중국시장에서 인기차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대차의 투싼보다 가격·품질경쟁력이 훨씬 뛰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현재 스포티지의 중국내 수입물량은 연간 3천~4천대에 불과해 광주공장의 생산계획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스포티지 부품협력사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16만여대의 스포티지를 생산해 이중 78%인 12만1천270대를 수출했고, 한국시장에서 3만5천860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내 스포티지 생산물량이 늘어나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광주공장의 스포티지 수출에도 적

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중국방문에 동행했던 광주공장 C모씨는 “스포티지의 중국 생산라인 신설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당장 큰 영향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걱정했다.

광주 시민단체 L모씨는 “현재 위에도기차가 수익성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빠르면 올 안에 스포티지가 중국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기아차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광주공장에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설립된 위에도기차는 연간 13만대 생산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해 천리마(액센트) 등 4개 품종 11만5천여대(점유율 2.7%)를 판매해 16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위에도기차는 오는 10월 2공장 준공을 계기로 생산규모를 연산 3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 이어 2010년 43만대를 생산, 중국내 6대 자동차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

‘교련’ 역사 속으로 교육부, 내달 개명키로

학생 군사교육의 일환이었던 고교생 ‘교련’과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97년 개정된 제7차교육과정에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 교과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교련 과목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련이 고교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 발생 다음해인 1969년이다. 1997년 7차교육과정에서 교련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개명작업을 끝내고 2012학년도부터 새로운 이름의 교과목으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

“6자회담 내달 8일 열자”

北, 中에 전달... BDA회의는 이번주 중반까지

북핵 6자회담 개최 일자가 다음달 8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 미국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는 내주 중반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면>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BDA 회의와 6자회담은 동시에 개최되지 않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최일자가 조정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 의장국 중국측이 회담 참가국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6자회담은 다음달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BDA 회의는 내주 초반보다는 중반(31일 또는 내달 1일)에 열릴 가능

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렇게 되면 대략 BDA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6자회담이 열리게 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희망하는 6자회담 개최 일자를 중국측에 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중국이 날짜를 아직 각국에 회담시킨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 참가국들은 어느 날짜든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6자회담은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회담 참가국들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후원기관 장학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새싹도 알기에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ALL LASH MASCARA LANEIGE